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34:1-3)

Praise the Lord, all you servants of the Lord!

(Psalm 134:1-3)

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고상한 활동이라고 John Stott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이 같은 예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참 예배인지를 잊어버렸고, 많은 교회들이 참 예배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Pastor John R.W. Stott says, "True worship is the highest and most noble activity that human beings can ever do to give thanks to God for His grace." But in many contemporary churches, we can almost never find worship like this. They have forgotten what true worship is, and many churches have simply thrown it away.

1. 올라가는 노래에서 가장 강조한 것

올라가는 노래 중 마지막이 되는 본 시는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시편의 종결 주제입니다. 이 시는 짧은 시이지만 밤의 노래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시입니다. 밤은 휴식, 중단, 암흑, 정절을 연상케 하지만 성전의 밤은 예외입니다.

1. The greatest emphasis in the songs of ascent

This last psalm among the songs of ascents emphasizes the worship service. 'Praise the Lord' is the concluding theme of the Psalter. This is a short psalm, but the fact that this psalm is to be sung through the night has amazing power. Night is normally associated with rest, discontinuation, and darkness, but the night at the temple is an exception.

2. 레위인의 섬김

만민이 잠든 밤에도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 국가나 사회가 지탱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시간은 항상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첫 광경은 불이 밝혀 있는 성전과 거기서 밤새껏 일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일꾼 중에는 제사장 뿐 아니라 찬양대원들, 그리고 특별한 직함이 없는 레위인들까지 모두 여호와를 섬기는 고귀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이들을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 The Levites' service

A country and a society are maintained by people who work through the night while others sleep. Because pilgrims from around the country often arrived at Jerusalem late at night, their first view upon arrival would have been the temple that was lighted. Not only the priests, but many worshipers also worked through the night. Choir members and Levites without any title were engaged in valuable service to the Lord. So, the psalmist described all of them as 'servants of the Lord.' The Levites were in charge of worship at the temple day and night. Accordingly, when the pilgrims had finished their pilgrimage and were heading back to their hometown, they were comforted by the fact that these Levites were performing worship, even while they were not in Jerusalem. The work that these workers performed in the temple was to light the lamp and keep the temple bright, to make sure that the light kept burning at the altar, to praise the Lord, and to raise their hands while they prayed.

레위인들은 성전 예배를 밤낮으로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성전 순례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는 순례자들은 자기들이 없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할 것을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성전에서 밤에 일하는 일꾼들의 하는 일은 등불을 켜 성전을 밝히는 것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 오늘의 예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예배가 그 존엄성과 영광스러움을 상실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며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3. Today's worship

The worship service must be the most momentous, urgent, and glorious event. However, worship has lost its dignity and glory, because we have neglected our worship service, become self-centered in our worship, and been oblivious to God. We can conclude from this that we have never really known God completely. And if we do not know God, we cannot worship God in righteousness.

4. 성경적 대답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계시한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① 여호와의 종은 기도해야 합니다. ② 여호와의 종은 성경을 읽고 가르쳐야 합니다. ③ 여호와의 종은 음악을 감독해야 합니다. ④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4. The biblical response

If we worship God in righteousness, we must first know Him by studying and learning the Bible that reveals Him. Therefore, 1) all the servants of the Lord must pray, 2) all the servants of the Lord must read and teach the Bible, 3) all the servants of the Lord must direct music, 4) and all the servants of the Lord must show respect to God.

4. 밤의 축복

하나님을 신중하게 만나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자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4. Blessings of the night

The Lord, who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will bless those who fearfully meet God and worship Him with devotion at Zion.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be blessed and enjoy this happines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 파송예배

비전 2020분부는 23일(화)에 간호사관학교 졸업감사 및 임관 파송예배를 주관한다. 설교는 박노철 목사가 하며 기독교간호장교로 임관되는 졸업생들은 병상에 있는 군장병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또 육군3사관학교 졸업 감사 및 임관 파송예배도 26일(금) 충성대 교회에서 있게 된다. 이들은 육군 전후방 각 부대 초급 지휘관이자 기독교장교로 군복음화의 최일선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부탁드린다.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이어져

교육1국: 2월22일(월)-23일(화) 교회

청년2부: 2월26일(금)-27일(토) / 에바다부 27일(토) - 아가페 타운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가 22일(월) 오전 9시 30분 101호에서 개회예배로 시작된다. 또한 청년2부 · 에바다부

겨울수련회가 아가페타운에서 열린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여 은혜로운 겨울수련회 되도록 기도한다.

한장총 공동신앙고백 · 신학교 인준규범 만든다

한장총(대표회장 : 이종윤 목사)은 한국장로교회 연합을 위한 기본 공동 신앙고백서를 작성 발표하고 난립되고 있는 신학교 정화를 위해 교육부 인가가 아닌 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한 신학교 인준규범을 작성하였다.

지난 1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회원교단 총회장들과 각 신학교 총장들을 초청 설명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함으로써 한국장로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를 열었다.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 두 번째 정기 연주회

2월25일(목) 오후 7시30분-본당

무지개어린이 합창단(단장: 오정수 장로, 지휘 강영모 집사)의 두 번째 정기 연주회가 25일(목) 오후 7시30분 우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은아 집사와 최유현 성도(소프라노)가 찬조 출연을 하여 각각 해금연주와 독창을 관객들에게 들려드린다.

문화의 기독교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며 오후 7시30분 이전에 본당에 입장하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은 지난 2008년 3월 창단하여 2009년 2월12일(목) 첫 번째 정기연주회를 가진 후 1년 만에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번 정기연주회에는 무지개어린이합창단원들의 합창과 함께 노



나눔의 집 기증품 기다려

우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사랑하고 물자를 절약하기 위해 지하3층에 나눔의 집을 개설하여 상시운영하고 있다. 나눔의 집은 성도들이 기증한 의류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번 목회자신학 세미나 참석자들과 성도들의 뜨거운 호응 아래 그 동안 기증받은 물건이 많이 소진되어 지금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도들 가정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의류 등을 교회에 기증하면 나눔의 집에서 훌륭한 상품으로 재탄생하여 한 점당 1,000 원에 판매되고 수익금은 선한 사업에 사용된다. 성도들의 많은 기증을 기다린다.

스데반회 연합 수련회 권사회 연합 수련회

3월1일(월) 아가페타운 / 2월 24일(수) 1시 101호

제1, 2 스데반회 연합수련회가 3월1일(월) 오전9시 아가페타운에서 열린다. 이 날 스데반회 연합 수련회에는 이종윤 목사와 임상현 장로가 강사로 설 예정이다. 스데반회에서는 회원 부부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권사회 연합수련회는 2월24일(수) 1시 101호에서 열린다. 이 날 권사회 연합 수련회에는 이종윤 목사가 강사로 설 예정이다. 주제는 '성경에 나타난 남녀의 문제'이다.



이종윤 목사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주여 내니이까?” 반문한다.
오늘 이 사회가
이토록 병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분명
우리 가운데 가롯 유다는 있다.
“내니이까?”
“네가 말했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유다는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인간이다.
부패한 양심과
거짓말로 위선의 탈을 쓰고
“내니이까?”하지 말고
“주여 나입니다”
진정 옆드렸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감춰 보았자 곧 창자까지
쏟아놓고 말 인간이거늘
언제까지
“내니이까?” 발뺌만 할 것인가.

주여,
정직한 영을 주사
참말만 하게 하소서!

노브고로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최종희 집사(4교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러시아에 파송된 김영호 서향정 선교사님의 초대를 받고 노브고로드 장로교회 창립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종운 목사님, 오정수, 이영기 장로님과 11명의 선교팀은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모스크바를 경유 생트 페테르부르크에 15시간의 긴 여정을 통하여 도착했습니다.

첫째 날 새벽예배를 선교사님 가족과 선교팀은 찬양, 말씀 기도로 은혜를 나누고, 3시간을 버스로 달려서 노브고로드 장로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종운 목사님께서서는 그곳에서 개신교 목회자 10가정을 대상으로 목사님들의 목회방향을 제시하는 특강을 하시고, 3시간의 밤길을 달려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82세 된 고려인 할아버지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둘째 날 창립예배는 고려인협회 회장 장발레리나

의 까라블(선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예배에는 총영사 부부와 고려인, 선교팀 8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종운 목사님의 노브고로드 장로교회 설립을 선포하시므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선교팀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라는 찬양을 드렸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12명의 세례식과 성찬식이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교회 창립예배는 정교회가 95%인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문화행사로 꾸며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리키 노브고로드는 정교회의 핍박과 감시가 심한 곳 중의 하나이고 한국 선교사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수 없이 노력했지만 소련이 무너진 후 20년동안 한국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한 곳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곳 노브고로드 지역에 서울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니 그 놀라운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파송된 지 2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시간이 있기까지 선교사님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장애인과 미혼모 여러분들을 섬기는 협력교회를 방문하여 작은 정성을 전달하였으며 다시금 푸쉬킨으로 이동하여 목사님께서 생트 페테르부르크지역 한인 선교사 18가정을 초대하여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특강을 하셨습니다.

예나(큰딸)는 통역으로, 예림(둘째 딸)은 반주로 민혁(아들)이 또한 통역으로 잘 준비된 작은 선교사임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새벽아침 선교사님 댁에서 식사와 차를 대접받고 예림이의 작곡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준비한 편지를 읽을 때 선교팀은 마음이 몽클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외롭고 힘든 선교지이지만 든든한 세 자녀가 힘이 되어주며 열정을 다하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서 큰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선교사님! 러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개척된 노브고로드장로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 특강 후 러시아 목회자들과 함께

이종운 목사님과 서울교회 러시아 선교단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호, 서향정 선교사의 첫째 딸 예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선교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일을 기뻐하셔서 러시아까지 발걸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창립예배와 첫 세례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의 일이 절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저 뿐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아직 너무 부족하고 훈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써주심에 저희도 큰 은

혜를 받았습니

다. 러시아에 와서 2년 가까이 지내면서 제 편에는 회생, 포기, 고난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그것조차도 주님 품 안에서 쉬고 있었던

것이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제 눈으로 직접 체험합니다. 저희 예나, 예림, 민혁이 보다도 더 힘들었을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또 그런 힘들 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비전도 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비전을 품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종운 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을 이기신 예수님과 너무 너무 영광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쓰시고 선교에 더욱 큰 도움의 일꾼으로 허락하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해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울교회 성도 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항상 저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갓 시작된 노브고로드 장로교회 위해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노브고로드 장로교회도 서울교회처럼 오직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 기도로 우뚝 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종운 목사님, 사모님과 12명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강건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러시아인인 선교사들에게 특강하시는 이종운 목사



▶ 세례식 장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겨자씨알만한 믿음뿐이지만 저희가 믿는 세상

나의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복순 권사 (살롬권사회 회장)

19년 전 사선을 넘어 무릎으로 달려온 대치동의 심장부 서울교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던 가요. 논현동 성전에서 새벽예배의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도 채 마르기전 옥상 천막 속에 들어가 목회자 세미나 김밥재료를 다듬고 색색으로 볶아 김밥 말던 그때가 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서울교회의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친 것은 기도 한 것 뿐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솔로몬 성전도 부럽지 않는 대치동성전과 가평에 아가페타운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올해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발달 장애인 호산나 대학이 그곳에서 문을 열고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곳에서 수련



회를 진행 중이라니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 꿈꾸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우리 눈으로 목도 할 수 있으며 손으로 만져지고 있으니 다윗왕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였드려 눈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깊이 뿌리내리는 겨울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비전으로 새로운 복음의 세상을 열어 가시는 든든한 우리 목사님!

요즘처럼 내적으로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외적으로 신앙의 영향력을 상실한 이 때 교계의 잠을 깨우며 이 시대 이 민족의 구원의 빛을 비추며 앞장서는 서울교회가 마냥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살롬권사님들도 비록 힘없고 작은 자들이지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한세대가 가고 또 한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회를 지키며 헌신하신 권사님들이 한해 한해 다르게 천국에 가시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지상의 천국, 아가페타운에 가서 맑은 초록 바람에 허리를 펴고 말쑥의 생수로 목을 축이며 산이 울리게 찬양하는 그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좋은 때, 제일 필요할 때 주시리라 꿈꾸며 그 날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롬권사님들도 오고오는 후손들의 부흥을 위해 오직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우리 교회 사랑부 학생들의 찬양으로 드립니다.

벨 플레이트 합주(지휘/김세원선생)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등 2곡의 연주를 하고, 이윤희학생의 피아노 독주, 기타합주단(지휘/박준희선생)이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를 연주한다.

반주는 곽정임선생이 담당한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3일(화) 안양대전체교수회 개강예배시 설교를 한다. 24일(수) 예단버러 100주년기념한국대회 준비위원회를 소집한다.
- 박태원집사(10교구, 94세)가 오늘 찬양예배시 롬12장을 암송한다.
- 임명: (12교구)노은아 집사 추계예술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겸임 교수
- 이사: (16교구)박희래 집사 이영숙 집사 가정 강동구 고덕동 499 고덕park 111-903
- 영전: (15교구)박홍래 집사 춘천지방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주간식당 봉사: 이삭전도회(2.21) 도르가전도회(2.28)
- 금주의 식사: 박금성 집사 이윤희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청년2부 겨울수련회 초대인글

주님 제자

홍창배 집사 (청년2부 부장)



2010년 서울교회 청년2부 겨울수련회를 2월26일과 27일 1박2일로 아가페타운에서 갖고자 합니다. 2010년 표어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청년의 때에 나의 삶은 주님 제자 되기

에 부족함은 없는지, 결혼 취업 등으로 고민하며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청년들의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교사, 회장 및 임직원들이 기



도로 준비하였으니, 서울교회 청년2부 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시고 주님을 믿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함께하여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10000여 평의 넓은 대지, 새로이 단장된 시설 위에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한 아가페타운에서 처음 갖는 수련회 설레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이종운 목사님과 박노철 목사님의 특강과 문정훈 담당 목사님의 인도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청년들이 다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2.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3.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북핵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